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에베소서 4:1-6)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Ephesians 4:1-6)

행함이 없는 교리를 죽은 신앙이요 죽은 정통이라고 한다면 바른 교리, 바른 진리가 없는 실천 신앙은 탈선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If a doctrine without deeds is a dead faith, a practical faith without correct doctrine can easily stray from the right path. Therefore, faith and conduct must always go together. In this way, the Apostle Paul teaches us that the balanced life is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1. 성도로의 부르심

1. Our calling as saints

우리는 본래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빛 되신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던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된 세상으로 끌어내셨습니다. 도덕적으로 별거벗었던 자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던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we were children of darkness, unhappy people who did not know eternal life and the light of Jesus Christ. But God called out such people as us into the light. He called out those who were morally stripped of any good and who considered their shame as their glory. He pulled us out into the truth of the gospel.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시어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Since He called us out from darkness into light, from death to life, and made His children, a children of light, we have now become new creations in Jesus Christ.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2 Corinthians 5:17). We exist as a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2. 부르심에 합당한 삶

2.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합당한 삶이란 자기가 처한 위치에 부합되게 사는 가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의 행동원리가 있습니다.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means that we must try to make our life more valuable in whatever position we hold. Here are five principles of conduct for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 ① 모든 겸손 - 모든 겸손이란 먼저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3대 덕성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 ② 온유 - 온유는 하나님께는 기쁘게 순종하고 이웃에게는 구원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 ③ 오래 참음 - 오래 참음은 참는 이유를 알고 불평 없이 기쁨으로 참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사랑의 용납 - 사랑은 모든 덕성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 ⑤ 연합 -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믿을 도 하나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 (1) All modesty - We must "be modest!" St. Augustine taught that the Christians' three moral natures are first modesty, second modesty, and third modesty.
- (2) Gentleness - Gentleness means that we must obey God with joy and share the benefit of salvation with our neighbors.
- (3) Patience - Patience means that we must find the reason why we lash out and learn to be patient with joy without any complaints.
- (4) Approval of love - Love allows the moral nature to accomplish good deeds. Therefore, if there is love, we are able to be approved in everything we do.
- (5) Union - Because the body is one, the spirit is one, hope is one, baptism is one, and faith is one, we must be one in Jesus Christ.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Conclusion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이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덕성입니다.

We are unable to see faith, but it is the most valuable property that we possess. Therefore, in order to keep our faith, we must follow the five principles of conduct mentioned above. When all modesty, gentleness, patience, forgiveness and union in the five principles of Christians' conduct are fulfilled in our heart, the appearance of Jesus Christ will emerge among us. Before God, we must be His successors, beautiful saints who please heaven and earth. In our everyday lives, producing the fruit of the Spirit and living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come God's faithful saint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연합의 다섯 덕성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고 하늘과 땅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CB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0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월1일(월) - 11월27일(토) 새벽5시~6시

강사 이종윤 목사,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

2010년 사명자 대회가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을 주제로 10월10일(주)부터 11월28일(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대회 기간 동안 전교인이 1명 이상 전도하는 태신자 작성, 주일을 제외한 11월1일(월)부터 27일(토)까지 24일간 이종윤 목사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해하는 특별새벽기도회, 50일동안 24시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오전10시와 오후10시에 열열히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성경암송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 〈공동기도제목〉
1.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치 못하고 게으르고 불충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잃은 양을 찾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3.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4.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를 이루어 한국18교회의 모범이 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5. 1교단 다체제를 통한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불신과 갈등, 분쟁으로 고통하는 한국 교회와 사회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6. 혼돈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 1, 2 스테반회 - 특강

10월1일(금) 오후7시 - 101호에서

10월1일(금) 오후6시 801호에서 식사를 마친 뒤 제1스 테반회(회장: 최광성 집사), 제2스테반회(회장: 송인권 집사)가 주최하는 특강이 오후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종윤 목사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고린도전서 15:22,45-49)을 특강한다. 스테반 회원부 부,피택 집사부부 동반으로 참여를 기다린다.

교육5국(장년부), 신앙강좌1·2부 수련회

10월2일(토) 09:30~13:00 - 웨스트민스터 홀

"하나님을 기쁘시게"를 주제로 교육5국(장년부), 신앙강좌1·2부 수련회가 10월2일(토)에 열린다. 은혜로운 찬양, 박노철 목사의 특강이 있고, 장석남 목사가 인도하는 전체 기도회가 있으며 각 부서장들의 진행으로 부서별로 즐거운 모임과 교제의 시간도 가지게 된다. 수련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이루기 바라며 아울러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가자 등록은 당일 오전9시부터 접수받으며 등록비는 5,000원이다.

목회자세미나 총동문회 임시총회 소집

9월 27일(월) 오후 1-2시 501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한국교회혁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4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로 구성된 '목회자신학세미나 총동문회'가 결성되어 그 동안 동문들의 친교와 세미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38학기(2010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회장과 부회장이 개인사정으로 동시에 유고(有故) 중에 있게 됨으로써 총동문회 활동을 더 이상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김무기 목사(임시총회 의장)와 여러 동문들의 제청으로 9월 27일(월) 오후 1-2시 501호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새 임원선출, 사업계획, 그리고 총동문회 활성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갈렙찬양대 대원모집

교인들의 장례 발생 시 상주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고인의 천국환송을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하는 갈렙찬양대(부장:하영수 장로)에서 신입대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찬양의 은사가 있고 장례 발생 시 감사와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가 가능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사무국에서 접수 받는다.

한 장로교단 속의 다체제에 대한 신학적 전거 <完>

순례자는 지난 7월 10일 제2회 장로교의 날에 제안한 '장로교 한 교단 다체제(多體制) 제도'에 대해 이종윤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 회장)가 한국기독교공보에 특별기고한 것(계속 연재 중)을 발췌한다. <편집자주>

마. '1교단 다체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참회, 개혁의 과제를 덮어버리고, 성숙의 기회와 과제를 놓치게 될 것인가? "1교단 다체제"의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기독교는 과거 지향적이지 않나, 미래 지향적이다. 하나님께서도 허물 많았던 지난 과거를 회개한 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데, 한 교파(예컨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파)가 다른 교파(예컨대, 신사참배한 교파)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으로 '회개'를 권면할 수 있을 뿐, 결코 정죄할 수는 없다. 누가 과연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돌로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각 교단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찢은 죄를 참회하고 주님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후 5:19)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장로교회의 각 교파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한 교단'으로 연합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다.

칼빈은 사둘레토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일치체를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증언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렇다고 아무런 원칙 없이 교회연합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1) 칼빈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가지 표지, 즉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그 공동체

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2) 칼빈은 본질적인 교리와 비본질적인 교리를 구분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3) 칼빈은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교회일치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 자신은 로마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4) 칼빈은 연합을 위한 중도의 길을 제시한다. 루터와 츠빙글리의 중간의 길을 취한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기는 하지만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항상 개혁되고 있는 교회'를 추구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기꺼이 한국장로교회는 '한(1)교단 다(多)체제'의 교회연합을 이루도록 2010년도 각 총회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해 줄 것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제안한다. <마침>

목사이중은 · 박사이중은 - 목회자의 길 100

이중윤은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라는...

그 당시에는 요즘같은 TOEFL시험제도도 없었다. 1,500명내지 2,000명 응시생 중 100명내지 150명을 선발하는 문교부 시험을 다시 합격하고 미국신학교에서 선교사에게 보내주는 영어시험을 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메인홀 전경

한영고등학교 고3영어 담임교사가 결근하여 교감선생님 특명으로 이중윤은 가르치라고 주신 작은 팜프렛 한권을 들고 고3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그 작은 팜프렛은 문교부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영어로 설명한 책이었다. 이중윤은 흥미있게 한 센텐스씩 읽어 가면서 칠판에 태극기를 그려 놓고 전에 알지 못했던 단어들과 지식을 얻으면서 가르쳤다. 그날 밤 Peter Vanilope박사(연세대 신과대 교수)앞에 가서 이중윤은 유학시험을 쳐야 했다.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입학담당 교수는 교회사를 가르친 Paul Wooly박사였다. 봉투를

열고 한참 문제를 읽던 Vanilope박사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이중윤은 문제를 받는 즉시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다.

두 문제 중 1번은 당신 나라의 국기에 대하여 논하라 였고 2번은 건축과 신앙을 논하라 였다. 1번은 숨 돌릴 시간없이 써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준

비시킨 문제로 알고 감사가 넘쳤다. 2번은 대학시절 중세교회사 시간에 고딕식 건물이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킨 양식이라는 강의를 들은 생각이 났다. 어렵지 않게 썼다.

이중윤은 웨스트민스터를 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의 대학시절 웨스트민스터의 코넬리우스 반틸박사가 한국을 방문 중 연세대학교에서 '발트나 바울이나'라는 강연을 하고 채플설교를 했다. 이중윤은 그의 분석적이고 깊이 있는 성경해석에 매료되어 그가 백낙준 총장과 걸어가는 뒤를 바짝 쫓으면서 그

림자라도 밟고 싶어 했다. 인기척을 느낀 반틸박사는 뒤를 보면서 굳은 무슨 공부를 하는 학생이냐고 물었다. 이중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반틸박사님은 친절하게 철학, 역사, 문학과목을 각각 15학점씩 공부하라고 하셨다. 그 날 이후 이중윤은 신학부 학생이지만 철학과, 사학과, 영문학과 과목을 할 수 있는 대로 수강하고 학점이수가 불가능할 경우엔 청강을 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다. 반틸박사의 변증학 첫 시간에 백지 한 장씩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학에서 공부한 철학과목 그리고 교수이름을 적고, 역사과목도 같은 방법으로 적게 했다. 그 과목이 부족한 공대나 이과 졸업생들에게 대학에 가서 이 같은 과목을 이수해야 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중윤은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할 것 같았다. 당시 term system하에서 수강할 과목은 많고 기간은 짧고 읽어야 할 분량이 많아 동분서주하던 그 시절이 이중윤에게 꿈만 같지만 그에겐 굉장하고 귀한 자산이 주어진 시기였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수준은 GNP 70불 정도였다. 유학생에게 국가에서 허락한 액수는 100불이었다. (다음 호 계속)

루디아 본당좌석 청소를 마치고

작은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오정숙 집사
(13교구,
루디아전도회 회장)



지난 9월 15일 수요일 1부 예배후에 루디아전도회와 보보전도회 회원들이 본당 좌석 대청소를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루디아전도회를 지도하시는 정수길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고 일사불란하게 3명씩 조를 이루어 준비한 접착용 테이프를 잘라 의자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과 먼지를 제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후 쓰레기 봉투가 머리카락 등 이물질로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며 개운한 마음으로 3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도들이 깨끗한 좌석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려보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3층에서의 작업을 끝내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파이프 오르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석, 헌금송석 등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당!

높은 곳에서 본 예배당은 참으로 웅장하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와 사랑과 나눔으로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는 섬김위원들과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 주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호산나 대학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리익상 선생 (호산나대학 교무행정 담당)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호산나 대학의 첫 국토대장정에 정말 잘 어울리는 주제였다. 호산나대학교 호산나학교 학생들 18명과 함께 임진각에서 학교까지 진행된 9박10일간의 도보여행은 세상을 향한 도전이었고 그 과정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임진각에서의 발대식, 복장을 갖춰 입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앞에서 국민의례와 선서 등 각종 의식을 치르는 사이 가슴은 벅차오르고 "이제 정말 국토대장정이 시작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의 격려와 환호 속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국토대장정은 시작되었다.

걸고 또 걸고 하다가 첫 날 일정이 끝나고 비몽사몽간에 저녁 프로그램 끝나고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다. 보통 타지에서는 잠자리가 불편할 잘 못 자는 성격인데도 전혀 뒤척임도 없이 단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글썽 대부분의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 조로록 앉아 있는 것이었다. 체력들이 어찌나 좋은지, 애들은 피곤하지도 않나...

처음에 다리에서 느껴지던 통증이 어깨로, 팔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다. 촬영 때문에 조끼 주머니에 카메라를 넣고 다녔더니 뒤통가 균형이 안 맞는지 허리와 등에도

통증이 느껴졌다. 거기다가 첫 날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둘째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우비를 입으니까 덥고 찝찝했지만, 뭐랄까 진짜 국토대장정 같다고나 할까. 오히려 신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대원들 중에 한 두명씩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도 생기고 체력적으론 다들 많이 힘들었지만, 힘들 때마다 누군가 화이팅을 외치면 다같이 따라서 외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또 숙소에선 장난도 치고 여느 때와 다름 없었지만, 걸을 때 만큼은 다들 의젓하게 어찌나 잘 걸던지 다들 정말 대견스러웠다.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함께 참여했던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따뜻한 눈빛을 주고 받으며 일종의 전우애(?)를 느끼고 있다.



성경 통독사경회를 마치고

읽어도 또 읽고 싶은 성경말씀

최영열 집사(2교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1:3)의 말씀으로 시작된 2010 성경통독사경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 성령의 깨달음과 인도하심의 복, 믿음이 커지는 기회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명절로 온 가족이 만나는 기쁨도 좋지만, 믿음의 조상(祖上)들을 만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자주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읽어도 또 읽고 싶은 그 말씀!

이번 성경통독사

조주현 성도
(청년1부)



2010년 성경통독사경회를 하면서 나는 내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장애를 가진 나를 무시하거나 따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경회에서는 아담의 위대함과 노아의 섬세함,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과 이삭의 순종, 야곱의 고난 속의 사랑과 요셉의 눈물여린 사랑, 모세와 민족 사랑과 여호수아의 담대한 리더십,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 맺은 조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민족을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과 성막과 제사와 절기가 바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으로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슴 뻗듯하고 기쁜 일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더욱 베풀어야겠다는 마음 가짐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전심으로 사랑해야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런 확신이 교회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을 믿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충성 봉사하여 교회의 작은 밑알로 보탬이 되기 위하여 노력 하려고 합니다.

김아리 성도(청년1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청년1부의 목표는 성경1독입니다. 저는 총무이기 때문에 매주 앞에 나가서 청년부원들의 성경읽기를 독려하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자신은 이런저런 핑계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번 시도는 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 통독 사경회에 참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경회는 창세기부터 사사기 까지를 범위로 2일간 12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읽기’ 인것 같습니다. 이번 통독 사경회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성경1독을 반드시 달성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의 솔로리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소프라노 신도란성도의 독창으로 드린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대와 로마 아카데미에서 성악을 전공하였으며 국립오페라단의 합창단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오산청소년 합창단의 보컬코치로 있다. 오늘은 ‘시편 23편(최덕신)’ 등 세곡을 고등부 찬양대 반주자인 박승기성도의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웨스트민스터홀의 116명의 성도가 2일 12시간 동안 총1,189장의 성경말씀 중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232장을 읽기도하고 듣기도 하면서 ‘아멘’으로 합창하여 주님께 26,812번이 올려드렸으니 이 행복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8일(화) 고신총회, 30일(목) 합동총회를 방문하고 한장총 대표회장으로 인사를 한다. 10월2일(토) 한국 장로교 신학회 학술세미나 개최예배 설교를 한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총장 피터 릴백 박사가 이종윤 목사 초청으로 10월1일(금) 내한한다.

영동시찰회가 28일(화) 일심교회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목사 전원과 김광신, 오정수, 노문환, 김영준, 이영기, 하영수, 서문석, 홍성주, 최희안, 조정식 장로등이 총대로 참여한다.

■ 5교구 유태왕 선생(가브리엘 찬양대 지휘) 인도네시아 선교 40주년 음악회 초청 연주 9월23일 출국(9.23~27)

■ 득남: 나성범 집사 김현정 성도 가정(7교구)

■ 주간식당봉사: 발립선교회(9.26) 안드레선교회(10월3일)

■ 금주의 식사: 김희진 권사 김우숙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4.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5.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